

News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금융판 이익공유제' 10월부터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 내게된다.

10명 중 7명은 변동금리...금리인상 대비책 조만간 나온다

e대한경제

지난 4월 말 기준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선택한 대출자의 비중은 73.0%로, 1년 전에 비해 11.5%포인트 급증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리스크에 대비한 대출상품 개편안 발표 예정. 현재의 차주 조건을 확대하고 금리상승 제한 폭을 확대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하나銀, 'DLF 자율배상' 사실상 완료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자율배상을 사실상 완료. 우리은행은 현재 DLF 자율배상 대상 고객 661명 가운데 651명에 대한 자율배상을 완료
하나은행도 현재 DLF 자율배상 대상 고객 1583명 가운데 1578명에 대한 자율배상을 완료했다. 완료율은 99.7%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다음달 재개

서울경제

올 4월 예보가 보류한 지분 2%의 시간 외 매매(블록세일) 이후 잔여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록업)가 7월 9일 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15.25% 잔여 지분에 대한 매각 절차도 다시 시작

'공모주 철세'에 통행료...삼성증권, 청약 수수료 신설

머니투데이

삼성증권이 공모주 일반 청약 수수료를 신설했다. 한국투자증권, SK증권에 이어 세번째
증권사들이 일제히 청약 수수료 신설 검토에 나선 건 균등배분만을 노리고 뛰어드는 '공모주 철세'에게 통행료를 받는 한편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코로나 백신효과' 보험업계 해외진출 대비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이 코로나19로 추축했던 해외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내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위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 때문
6월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 코리안리 등 보험사들이 해외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카카오 보험사 등장하나...예비허가 심사 9일로

조선비즈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손해보험사의 예비허가가 이번주 나온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사는 처음이라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심사 심의안건이 상정. 지난해 12월 29일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가 신청한지 반년만

차보험 4년만에 흑자 기대감... "코로나· 잦은 비에 사고 ↓"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흑자 구간에 진입
8일 손해보험 각사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지난달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1~79.8%로 잠정 집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